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에배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2026.2.22.

사도행전 10:41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제 곁을 스쳐 지나가시며 아주 짧게, 그러나 매우 예리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며 던지신 말씀이었고, 뒤이어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분주한 상황이었기에, 그 자리에 서서 진지하게 대답해 드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치고 말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 주간 내내 그 짧은 질문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남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담긴 본질적인 해답이 아마도, 언젠가 꼭 한번은 우리 성도님들과 강단에서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흔한 대답과 그 한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의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그런 차별을, 혹은 편애를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어온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에 단순히 땅의 소산인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원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경 문화보다는 유목 문화에 더 친화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역사적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신학적 설명도 덧붙여지곤 합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해석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의 여정 속에서는 이 대답이 그리 시원하고 온전한 해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업이 농부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땀 흘려 가꾼 최선의 열매를 드렸음에도 거절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마치 헌법재판소의 '법전'처럼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점일획도 틀려서는 안 되는 딱딱한 규범집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취급하여 모든 기적을 과학적 논리로만 증명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법전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과 인간의 깊은 영혼이 만나 교제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문학(Literature)'입니다.

"문학이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소설처럼 지어낸 가짜 이야기란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문학이라고 하면 꾸며낸 픽션을 떠올리지만, 본래 문학이란 인간의 모든 정신과 영혼, 철학과 삶의 애환을 글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최고의 종합예술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거나 손가락만 튕기셔도 세상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왜 굳이 '말씀(언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기계의 조립자가 아니라, 우리와 언어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감정을 나누며, 뜻을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이 문학적 텍스트인 성경의 행간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영수 학원 보내서 시험 점수 10점 올리는 것보다, 좋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다릅니다. 문학적 소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 내는 영적인 촉각도 모두 이 문학적 소양, 즉 '영적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사상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문학적 소양)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그저 차가운 머리로만 동의할 뿐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법률적 조항이나 직업의 차이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소양과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통찰을 가지고 그 옛날 가인의 제단 앞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보겠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축소판, 가인의 제단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그들이 '무엇'을 바쳤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인가?' 하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은 곳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에덴동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 마주하게 된 소위 '세상'이라 불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창세기 3장으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선포하신 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대한 문학적 메타포(은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린 대로 정직하게 열매를 돌려주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밤잠을 줄여가며 죽도록 땀을 흘려 받을 갈았는데, 땅은 나에게 부드러운 밀알 대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배신으로 갚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편법을 쓰는 경쟁자에게 밀려 무너집니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깊은 병마와 상처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마땅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든 '세상'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가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는 대충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맨손으로 뽑아내며 최선을 다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 뼈를 깎는 수고를 부정당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며 가인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뼈를 문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처참할 때, 우리는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저 사람의 삶은 아벨의 제단처럼 훌륭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의 제단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하는 이 쓰라린 장면을 성경의 맨 앞부분에 배치하심으로써, 우리

에게 이 세상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사는 세상은 본래 공평하지 않단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완벽한 보상을 얻을 수 없는 망가진 세상이란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진짜 비극, 진짜 죄악이 발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노력해도 가시덤불을 내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마주했을 때, 가인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의 본질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죄 없는 동생 '아벨'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타인을 표적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고,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악한 변명, 그것은 내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힘이 있다." 망가진 세상은 가인에게 '수고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자극 앞에서 '분노와 살인'이라는 끔찍한 반응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겁(Cowardic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툭하면 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교회 리더십을 탓하고, 급기야 배우자와 자녀를 탓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가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애먼 사람에게 쏟아붓는 그 비겁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밥상, 그리고 신앙의 본질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착착 바뀌고, 내가 헌금하면 투자 수익률처럼 복이 계산되어 돌아오는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때로는 내 진심을 무참히 짓밟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가인처럼 남을 원망하며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다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늘의 인정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묵상할 때면,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던지 중학교 시절이었던지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철딱서니 없이 행동해서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일방적으로 못된 말을 쏟아내어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대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제 철없는 가시덤불 같은 말에 상처를 입으신 어머니는 깊이 속

상해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저는 방문 밖을 나서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내일 아침에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방문 너머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벅꾸벅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도, 자식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엄마로서의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자식이 가시덤불로 엄마의 마음을 찢어도,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노여움이 엄마의 일상, 엄마의 사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랑 끝으로 몰아가며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나의 감정을 기쁨과 감사로 지켜내고, 내 마음의 영적 식탁을 평안으로 차려내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신앙의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그의 명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푸시킨의 이 시구처럼, 세상의 불합리 앞에서도 묵묵히 내 믿음의 밥상을 차려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신앙의 절정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의 민낯 앞에서도, 선지자는 결코 원망의 돌을 들지 않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 4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에 결론적으로 적용해 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

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고 강력하게 변증했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의 변증입니다. 하지만 문학적, 영적 소양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 구절에는 훨씬 더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합리한 일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를 사랑하사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분이,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속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땅은 예수님께 가장 거대하고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어야 합니까?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쳐들어가 그의 목을 조르시거나, 대제사장 가아바의 집에 불을 지르며 복수하셨어야 마땅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아, 내가 당한 억울함을 갚아주마!" 하며 세상을 뒤집어엎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세상의 불합리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못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 지친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상의 식탁', 곧 '사랑의 밥상'을 차려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한 이 식탁의 교제는, 세상의 어떤 악의와 배신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의 일상을 파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와 모순, 나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맞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가인처럼 피 튀기는 복수로, 분노와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내놓든,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식탁에 앉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분노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감사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이불을 걷어차고 찬양의 밥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악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당신의 식탁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세상의 땅은 또다시 여

러분을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놓을지도 모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선의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아, 가인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돌을 집어 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인의 비겁한 제단을 허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불합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며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식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셨던 그 어머니의 묵묵함처럼, 십자가의 참혹한 배신을 겪고도 제자들을 위해 구운 생선과 떡을 내어주시며 함께 먹고 마셨던 부활의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일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지키십시오. 평안의 식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동치고 불공평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묵묵히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동행을 이어가는 참된 증인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